

선물옵션 분석

제한적 추가 상승. 조건은 외인+기관 연합 순 매수



SUMMARY

- Check 1. 시황 전망: 제한적 추가 상승. 조건은 외인+기관 연합 순 매수
- Check 2. 옵션 투자자별 동향: 외인 포지션 델타 '4'로 급등. 지수 상승 대비
- Check 3. 선물옵션 통계

요약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추세지만 제한적인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전일 5MA를 돌파한 데다, Stochastic slow 역시 반등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차 피보나치 조정대 38.2%의 저항이 확인된 데다, 이를 돌파하더라도 200MA+20MA의 복합 저항선(KOSPI 1992p)이 근접 대기하고 있어서 상승 폭은 제한될 것이다.

수급에서도 제한적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일단 외인의 개별 종목 순 매수가 연속된 긍정적이다. 시가 총액 상위 종목의 함량이 높아 지수 견인력도 강하다. 배경은 미 대선 직후에 주춤했던 인터내셔널 펀드의 자금 순 유입이 재개된 탓이다. 선진국 중심 액티브 펀드가 대선 결과를 그리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펀드의 자금 순 유입은 지난 해 9월부터 추세적으로 둔화된 상태며, 외인의 개별 종목 수급은 올해 9월부터 추세적으로 순 매도로 돌아선 상태다. 즉, 미국 대선 결과가 이를 뒤집을 만한 호재가 아니라면 잠시 대피했던 자금이 복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므로 순 매수의 지속성이나 강도는 불충분하다.

반면에 외인 비차익이 약화된 것은 이머징 증시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뜻한다. 물론, 전일처럼 기관의 개별 종목 순 매수가 보조한다면 지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그러나, 증권 순 매수는 주식 스왑 헤지 청산에서 자주 관찰된 일시적인 것이므로 지속성은 낮다. 연금과 여타 기관도 지수가 상승할수록 순 매수는 약해질 것이다.

한편, 전일 선물 외인 역시 오랜 침묵(?)을 깨고 순 매수가 늘었는데 미결제 감소를 감안하면 환매다. 중기 세력 보다는 동시에 신규매도를 누적했던 세력이 청산에 나선 것이다. 그 전에 미니 선물에서 전매가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시차를 두고 양건 전략을 청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환매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

옵션 외인은 전일 ATM 부근에서 스트랭글을 매수했다. 결합 포지션의 델타가 '+'였던 데다, 지수도 상승했기 때문에 포지션 델타는 급등해 11월 만기일 이후 처음으로 '+' 반전했다. 다만, 포지션 배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개방돼 지수 방향성 보다는 변동성에 베팅한 상태다. 만기일 BEP는 K200지수로 237~265p 외곽이다.

[파생상품]

심상범

02-768-4125

sangbum.sim@miraeasset.com

Check 1. 시황 전망: 제한적 추가 상승. 조건은 외인+기관 연합 순 매수

전일 K200지수는 갭 업(+1.34p) 후 추가 상승했으나 중반부터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등락-횡보하다가 마감했다(시가+1.52p). 초반 상승은 수급상 외인과 기관의 개별 종목 순 매수가 겹친 탓이었으며(지수-외인 추세 상관관계수 +0.89), 중반 이후 횡보는 기술적으로 피보나치 조정대 38.2%의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기술적/수급적으로 제한적 추가 상승. 단, 외인+기관의 개별 종목 순 매수가 이어져야 실현 가능

일시적인 추가 상승은 가능. 단, 피보나치 조정대 50% 돌파 전까지는 하락 추세 유효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하락 추세지만 제한적인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전일 5MA를 돌파한 데다, Stochastic slow 역시 반등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차 피보나치 조정대 38.2%의 저항이 확인된 데다, 이를 돌파하더라도 200MA+20MA의 복합 저항선(KOSPI 1992p)이 근접 대기하고 있어서 상승 폭은 제한될 것이다[그림 1].

수급에서도 제한적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일단 외인의 개별 종목 순 매수가 2일째 이어진 점은 긍정적이다. 게다가 시가 총액 상위 종목이 많아 지수 상승 견인력도 강하다. 다만, 기관의 개별 종목 순 매수는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낮으며, 외인 비차익 순 매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이번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외인 개별 종목 순 매수는 인터내셔널 펀드 자금 순 유입 가속 탓. 단, 지속성은 의심됨

현물 외인 순 매수 이동, 비차익→ 개별 종목. 단, 시총 상위 종목이어서 지수 상승 견인

현물 외인은 4일간 +2,686억원을 순 매수했는데 초반 2일에는 비차익 중심이었고(+1,184억원), 후반 2일은 개별 종목 중심이었다(+1,601억원). 특히, 4일간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종목 순 매수는 +1,566억원에 달했으며, 때문에 주가는 기준에 +5.26%나 올랐다. 그만큼 지수 상승 견인력이 강했던 셈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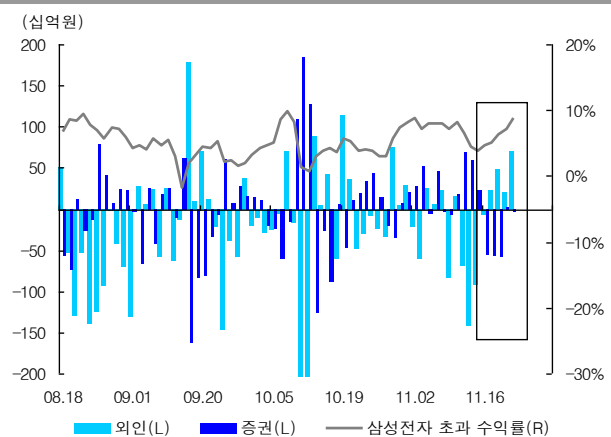
원인은 인터내셔널 펀드(International Fund)의 자금 순 유입이 2주째 가속된 탓으로 추측된다. 10월 20일~11월 9일 사이 3주간, -19억 달러의 자금이 순 유출되었으나 이후부터 11월 16일까지는 +14억 달러가 순 유입되었다. 23일 수치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개별 종목 순 매수를 감안하면 더욱 늘었을 것이다.

그림 1. 기술적 저항선 겹겹이 대기해 상승 폭 제한 불가피



주: 각종 추세선은 당사 임의 작도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2. 외인, 4일째 삼성전자 개별 종목 순 매수로 추가 상승 견인



주: 외인, 증권은 삼성전자 개별 종목 순 매수 = 전체 순 매수 - PR 순 매수(유동 시총)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외인, 선진국 중심 일부
업종에는 덜 부정적이나, 이머징
증시 자체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반면, 비차익은 이틀째 -243억원을 순 매도했는데 특히 전일은 증가 순 매도가 -20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는 11월 16일 이후에 GEM 펀드에 자금 순 유입이 재개되었으나 인터내셔널 펀드와는 달리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해외 연/기금의 인덱스 펀드 역시 한국 비중 줄이기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인터내셔널 펀드는 선진국 중심의 액티브 펀드 비중이 많으며 GEM 펀드는 이머징을 대상으로 하는 인덱스 펀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의 엇갈린 자금 흐름은 이번 미국의 대선 결과가 선진국의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리 부정적이지 않지만,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는 해석이 된다.

비록 외인의 개별 종목 순 매수가 이어졌지만 지속성이 의심되는 데다, 단독으로 지수를 상승 견인할 만큼 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 반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터내셔널 펀드의 자금 순 유입은 지난 해 9월부터 둔화되었으며, 개별 종목 역시 올해 9월 29일부터 순 매도로 반전한 상태다[그림 3, 4].

증권, 종목 순 매수 지속 가능하나 일시적. 연금, 종목 순 매수 지속 가능하나 성분이 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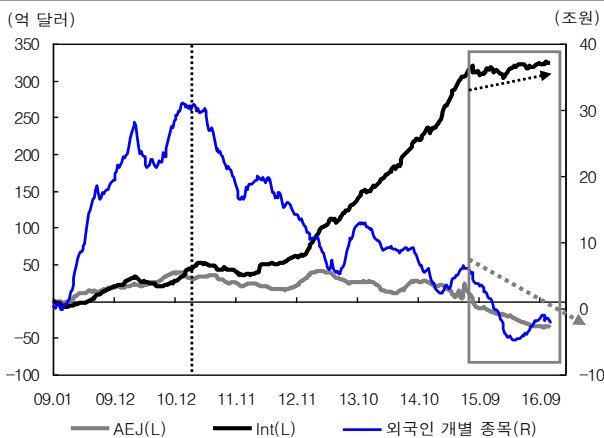
물론, 전일처럼 증권+투신+연금의 개별 종목 순 매수마저 계속된다면 지수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외인+기관의 연합 순 매수(매도)=장 중 지수 상승’은 데이-트레이더(day-trader)에게 항등식(恒等式)이다(물론, 이때 기본적으로 외인 비차익은 순 매도가 약하거나 다소나마 순 매수 우위가 되어야 한다).

증권, 주식 스왑 헤지 청산
과정에서 관찰된 개별 종목 순
매수는 산발적/일시적

그러나, 과연 이들의 개별 종목 순 매수가 계속될까? 일단 증권의 개별 종목 순 매수는 예상했던 바다. 본 자료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과거에 이들은 주식 스왑 헤지 포지션의 청산 과정에서 일시적인 순 매수가 산발적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는 제한적이었으며 끝내는 순 매도가 재개되는 편이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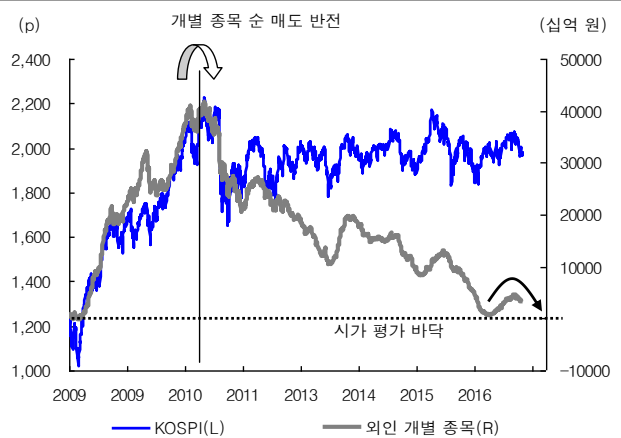
연금도 마찬가지다. 예정된 자금 집행 여력이 6천억원 이상이지만 철저한 저가 매수에다 바스켓이나 대형주 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이므로 지수 상승에 도움이 안 된다. 8월부터 개별 종목 순 매수가 가속되었지만 올해 전반기에 줄였던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복구 완료되었기 때문에 역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낮다[그림 6].

그림 3. International Fund는 지난 해 9월부터 자금 순 유입 둔화



주: 주간 단위 자금 순 유출/입 누적. 개별 종목은 주간 단위 순 매수 누적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4. 외인, 개별 종목은 이미 9월부터 순 매도 반전



주: 개별 종목 = 전체 순 매수 - PR 순 매수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여타 기관도 다르지 않다. 과거에 이들은 KOSPI 2000p 이하에서 순 매수가 가속 되었는데 이번에는 추가 하락할수록 순 매수가 줄었다. 그만큼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증거다. 지수가 상승할수록 순 매수는 약화될 것이며 2000p 이상에서는 순 매도 반전할 것이므로 지수 상승 폭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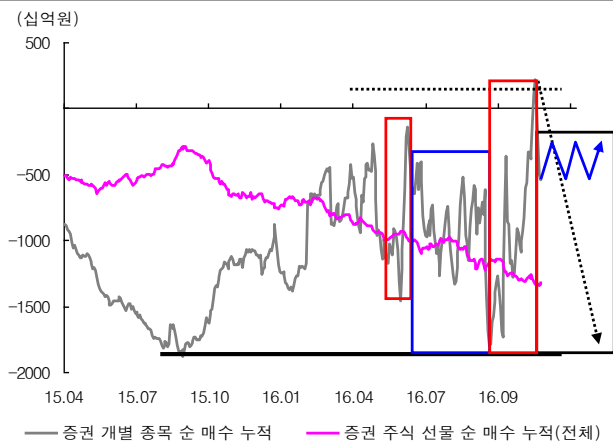
선물 외인, 제 3 세력이 미니 선물 전매에 이어 본 선물 환매. 본 선물 환매 여력은 아직 충분

전일 선물 외인 순 매수는 미결제 줄어 환매. 본 선물과 미니 선물 양건 전략 청산 중

5일간의 매매 편향 강도가 크게 줄었던 선물 외인은 전일 +5,347계약을 순 매수 하면서 침묵을 깼다. 이는 11월 10일(+6,419계약) 이후 최대 순 매수였다. 단, 미결제가 -2,333계약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신규매수 보다는 환매가 많았다. 중기 세력이 아니라 신규매도를 누적했던 ‘제 3 세력’이 청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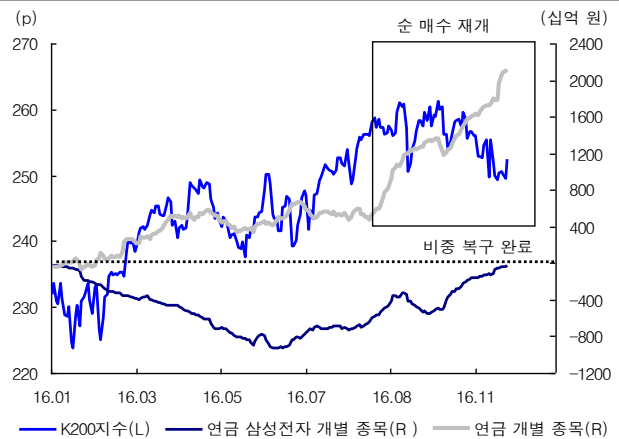
그 전 4일간 미니 선물에서는 -33,715계약을 순 매도했는데 미결제가 줄어 전매가 유력했다. 결국, 시차를 두고 본 선물의 환매가 뒤따른 셈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니 선물 신규매수와 본 선물 신규매도를 동시에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선물 환매 여력은 아직 충분하므로 미결제는 추가로 감소할 것이다.

그림 5. 증권, 종목 순 매수는 일시적/산발적. 곧 순 매도 재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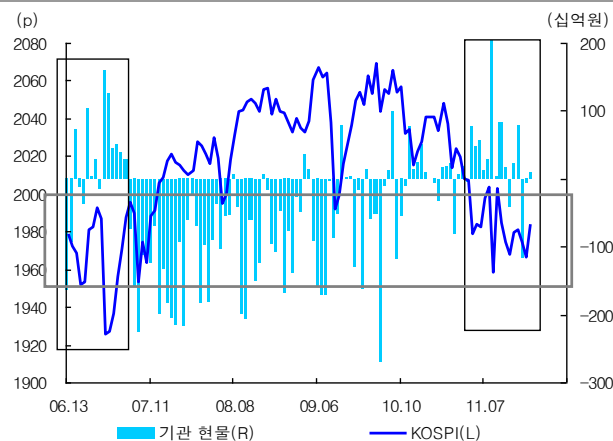
주: 주식 선물은 만기 구분 없이 일별 순 매수 단순 누적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6. 연금, 올 초에 줄었던 삼성전자 비중은 복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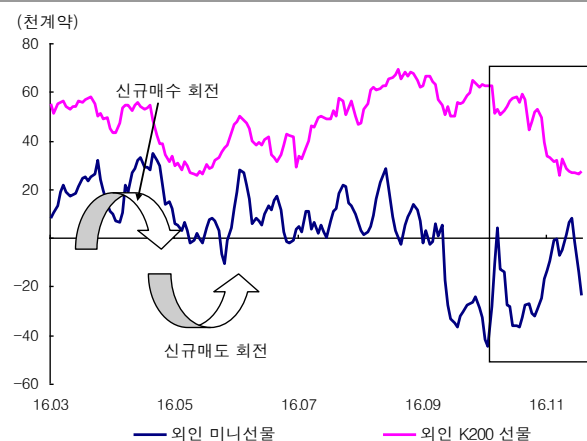
주: 삼성전자 개별 종목 = 전체 순 매수 - PR 순 매수(유동 시총)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7. 기관은 미 대선 이후 지수 하락해도 순 매수 늘지 않아



주: 기관 현물은 증권, 연금 제외한 일별 순 매수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8. 선물 외인, 본 선물 신규매도+미니 선물 신규매수의 양건



주: 만기 구분 없이 일별 순 매수의 단순 누적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전일 ATM 부근 콜, 풋 신규매수. 콜 OTM 신규매도는 증거금 절감용. 방향성 보다는 변동성 베팅

Check 2. 옵션 투자자별 동향: 외인 포지션 델타 '+로 급등. 지수 상승 대비

전일 외인은 ATM에 근접한 풋 250, 245는 신규매도, OTM은 신규매수했으며, 콜에서는 ATM 부근을 신규매수하고 OTM 262, 265를 신규매도했다. 결합 포지션은 '스트랭글 매수'를 닮았으며 델타는 '+ 12억원/p'였다. 여기서 지수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누적 포지션의 델타는 단숨에 급등해 '+ 5.5억원/p'로 돌아섰다. 일단 지수 추가 상승에 대비한 셈이다. 다만, 포지션 델타보다 벡가가 훨씬 커서 지수 방향성 보다는 변동성에 베팅한 상태다. 감마도 ATM 부근에서 최대한 낮춰놓은 상태다. 만기일까지 K200지수가 237.5~265p를 벗어나야 수익이 가능하다.

표 1. 주체 별 지수 방향과 변동성 방향 전망 (단위: p)

구분	BEP	Max level		지수	변동성
		이익	손실		
외인	상한	265.0	++	245.0	↑
	하한	237.5	++	245.0	
개인	상한	270.0	++	267.5	↑
	하한	245.0	252.0	--	
투신	상한	257.0	252.5	--	↓
	하한	242.5	252.5	--	
증권	상한	270.0	265.0	--	↑
	하한	220.0	23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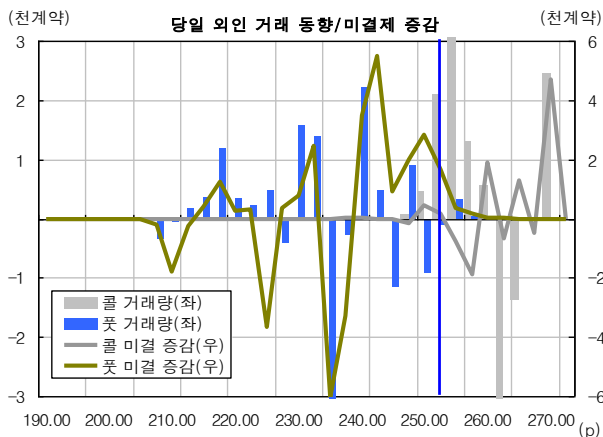
주: 1) BEP 상한(하한)은 지수 상승(하락)시 손익이 전환되는 레벨
 2) Max level 상한(하한) 이익/손실은 지수 상승(하락)시 최대 수익 발생하는 지수 레벨, '++(--)'는 최대 손익이 무한대
 3) 지수/변동성의 화살표는 Greeks와 결합 포지션에 근거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각 투자자의 지수/변동성 방향 예측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표 2. 주체 별 포지션 Greek's (단위: 백만원)

구분		Delta	Gamma	Theta	Vega
외인	누적	548.44	133.02	-380.09	1004.37
	당일	1201.31	59.00	-178.23	445.51
개인	누적	1319.72	-292.21	811.49	-2206.29
	당일	-428.18	-128.63	367.47	-971.32
투신	누적	-322.82	-43.17	125.12	-325.97
	당일	-54.25	-3.27	9.75	-24.65
증권	누적	509.60	106.24	-304.03	802.20
	당일	-297.91	30.22	-82.54	22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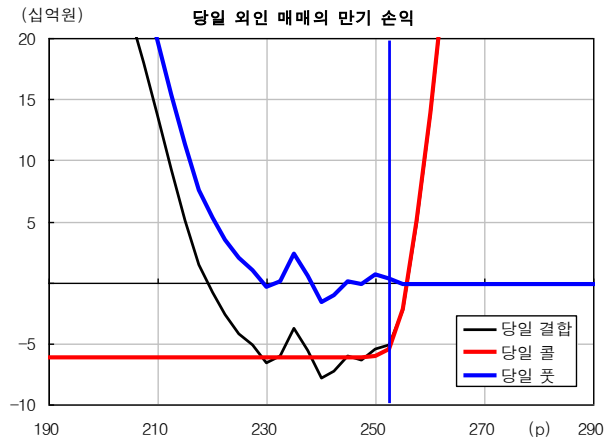
주: 1) 행사가격별 Greeks는 대우증권 Q way TR[3216]의 최근월물 기준을 사용
 2) 누적 Greeks는 콜/풋 행사가격별 Greeks 총 합계로 (특정 행사가격의 누적 순매수 X 해당 행사가격의 당일 Greeks)를 사용함
 3) Gamma는 여타 Greeks와 절대 비교를 위해 1/2를 적용. S²를 적용하면 됨. 모든 Greeks는 백만원 단위, ΔS=1p, Δσ=1%p임
 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9. 외인, 풋 OTM 신규매수는 증거금 절감용+복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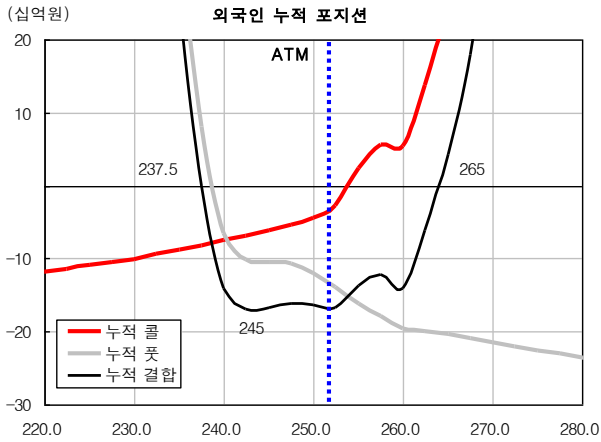
주: 행사가격 별 순 매수는 당사 Qway 기준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0. 외인, 결합 포지션은 스트랭글 매수(Long Stra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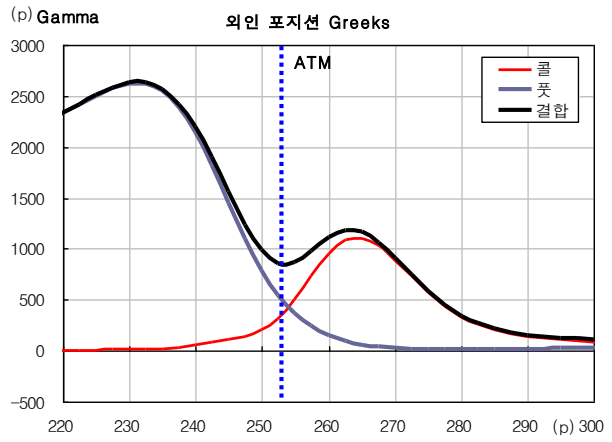
주: 전일 행사가격별 순 매수 누적의 만기 손익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1. 외인, 만기일 BEP는 K200지수 237.5~265.0p 외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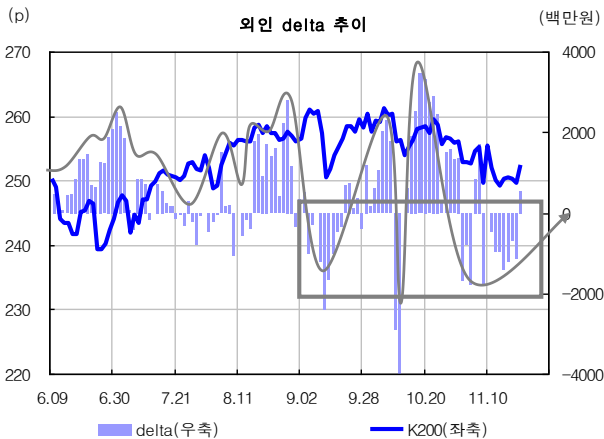
주: 행사가격 별 누적 순 매수를 지수 수준 별 만기 손익으로 표시한 것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2. 외인, 누적 포지션 감하는 ATM 부근에서 단기 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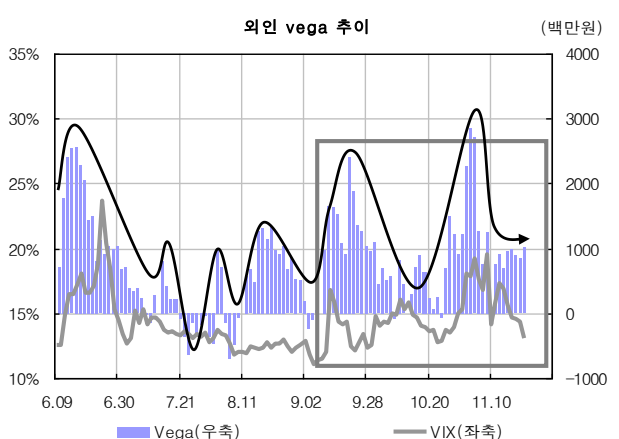
주: 행사가격 별 델타의 합계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3. 외인, 포지션 델타는 급등해 '+'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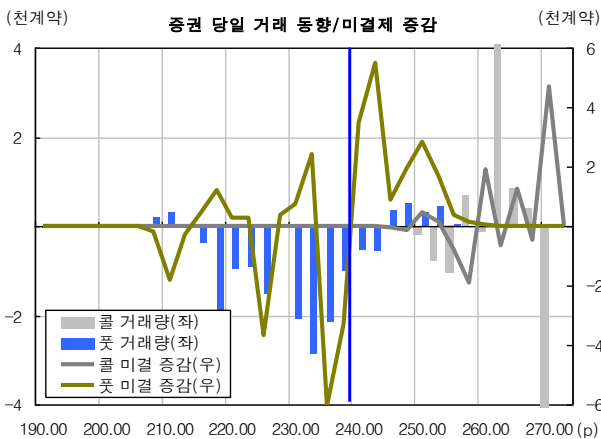
주: 포지션 델타의 추이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4. 외인, 변동성 하락 불구, 포지션 베가 여전히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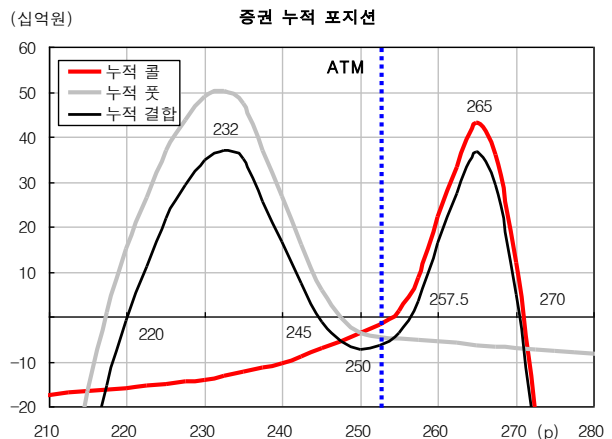
주: 포지션 베가의 추이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5. 증권, 풋 대량 순 매도



주: 행사가격 별 순 매수 누적은 Qway 참조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16. 증권, 만기일 K200지수가 245~257.5p 벗어나면 수익



주: 행사가격별 순 매수 누적을 지수 수준 별 만기 손익으로 표시한 것
 자료: KRX, KOSCOM,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heck 3. 선물옵션 통계

주가지수선물 가격정보

	KOSPI200	1612	1703	1706	CM3S
기 준 가 격	249.51	249.80	247.10	248.45	-2.65
시 가	250.85	250.50	247.65	248.45	-2.70
고 가	252.85	253.05	250.35	248.45	-2.65
저 가	250.47	250.45	247.65	248.45	-2.70
종 가	252.37	252.55	249.90	248.45	-2.65
전 일 대 비	2.86	2.75	2.80	-	-
이 른 가 격	-	252.54	249.55	250.42	-2.99
총 약 정 수 량 *	53,843	97,069	700	-	1,756
총 약 정 금 액 **	2,598,799	12,234,955	87,254	-	441,339
미 결 제 약 정	-	129565 (-2192)	20045 (1779)	1876 (0)	-
배 당 지 수 ***	1.42% (CD금리)	0.00	3.87	3.89	-
반 응 배 수		1.09	1.13	-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0.214			
전 일 대 비		0.107			

주: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CM3S : 12월물과 3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단위: 계약수)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 수	매	65,698	23,396	6,758	240	2,391	102	621	61
	도	60,351	25,639	10,426	306	1,684	130	620	71
	비	63.5%	24.7%	8.7%	0.3%	2.1%	0.1%	0.6%	0.1%
순 매 수 누 적	전 일	5,347	-2,243	-3,668	-66	707	-28	1	-10
	누 적	-29,633	-2,666	14,219	-2,675	14,248	-402	640	6,212
매 매 편 향 강 도		4.24%	-4.57%	-21.35%	-12.09%	17.35%	-12.07%	0.08%	-7.58%

주: 누적은 지난 퀴드러플워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천주)	거래대금(백만원)	외국인보유	TIGER200	KODEX200
TIGER200	295	1.18%	822	20,708	11.18%	NAV	25,237
KODEX200	285	1.14%	1,830	46,072	5.44%	(ETF-NAV)%	-0.01%
						T/E	0.01%
증가/100	252.35	252.25	252.36	252.55	252.52	설정주수(천주)	100
eff.delta	1.03	1.00	1.83	0.96	1.83	환매주수(천주)	500
diff/basis	-0.01%	-0.05%	0.00%	0.18	0.15	상장주수(천주)	71,150
							167,95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 표	11.9%	콜평균(%)	10.4%	풋평균(%)	13.6%	역사적 (5일,%)	8.8	역사적 (20일,%)	15.1
내재변동성(%)									
월물 행사가격		1612					01701		
		257.5	255.0	252.5	250.0	247.5	255.0	252.5	250.0
Call	가 격 (p)	0.57	1.30	2.47	4.01	5.97	1.88	2.82	4.01
	전 일 대 비 (p)	0.28	0.58	0.98	1.34	1.76	0.54	0.75	1.01
	내 재 변 동 성 (%)	10.10	10.70	11.30	11.80	12.80	11.10	11.50	12.00
	거 래 량 (계 약 수)	102,435	85,883	68,512	14,048	2,294	1,560	1,007	243
	미 결 제 (계 약 수)	25,687	23,261	12,268	9,137	1,212	2,366	1,285	825
Put	가 격 (p)	5.51	3.77	2.45	1.55	0.96	7.60	6.10	4.71
	전 일 대 비 (p)	-2.59	-2.17	-1.76	-1.34	-0.97	-1.90	-1.78	-1.84
	내 재 변 동 성 (%)	10.00	10.70	11.40	12.10	12.90	10.30	11.00	11.20
	거 래 량 (계 약 수)	460	2,605	24,851	50,045	54,322	42	23	97
	미 결 제 (계 약 수)	1,404	4,430	10,132	18,316	17,870	1,263	423	3,070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단위: 계약수)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 수	240,040	159,568	102,242	0	909	2	7,418	73
	매 도	236,992	162,455	100,077	20	1,479	2	9,091	136
	비 중	46.7%	31.6%	19.8%	0.0%	0.2%	0.0%	1.6%	0.0%
순매수 누적	전 일	3,048	-2,887	2,165	-20	-570	0	-1,673	-63
	누 적	20,969	14,832	-29,291	15	-980	54	-5,539	-59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국가
	매 수	284,540	179,820	80,426	0	1,214	65	15,759	0
	매 도	281,453	171,534	93,935	0	946	168	13,803	0
	비 중	50.4%	31.3%	15.5%	0.0%	0.2%	0.0%	2.6%	0.0%
순매수 누적	전 일	3,087	8,286	-13,509	0	268	-103	1,956	0
	누 적	130,020	-106,307	-19,357	0	438	2,906	-7,725	-3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주체 별 프로그램 매매 동향

(단위:억원)

구분	합계	외인	기관 합계	증권	보험	투신/사모	은행	기타법인	연금/국가
당일	현물 전체	771	548	435	-264	423	-34	138	-18
	개별 종목	352	907	763	359	-92	359	-54	138
	차익 PR	100	65	35	22	0	13	0	0
	비차익 PR	-452	-202	-250	53	-172	51	21	0
	매매 비중	34.2%	87.7%	11.9%	2.0%	2.7%	4.6%	0.2%	0.0%
누적	현물 전체	-9,332	8,693	255	1,445	-5,048	-329	13,393	12,293
	개별 종목	-2,764	2,127	1,050	891	-9,599	-1,054	13,357	10,673
	차익 PR	441	-842	-668	137	-429	0	0	119
	비차익 PR	2,323	7,408	-127	417	4,981	725	35	1,501

주: 현물 전체는 K200 기준

개별 종목 = 현물 전체 - 차익 PR - 비차익 PR

매매 비중 = 주체별 PR 매수+매도/전체 PR 매수+매도, 합계의 매매 비중은 현물 전체에서 PR의 매매 비중

누적은 선물 만기일 이후부터 당일까지 누적한 것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시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